지니의 한국 사는 이야기
'나는야 1.5세 아줌마'

거리 두어도 괜찮아

\ ]=-ㅌㄱㅋㅋㅋㅋㅋㅌㅇㅋㅅ 9ㄱㅡㅅㅎ히.1ㄱ

방금 내 키보드에 올라온 우리 집 고양이 A의 흔적이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고 하니 귀찮은 듯 꼬리를 서너 번 휙휙 젓고는 책상 밑으로 내려가버렸다. 고양이 남매가 우리 집에 온 지 6개월이 되어간다. 아직도 길들여지지 않은 길고양이와 다를 바 없지만 이제 제법 이름을 부르면 고개를 돌려 쳐다보거나 귀를 움직이긴 한다. 물론 여전히 이름을 듣고 반갑게 달려오거나 꼬리 치며 안기거나 하지는 않는다.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집에 들이며 무조건 명심해야 할 사항이기도 한데 자칫 고양이를 개랑 비교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가는 크게 상심에 빠질 수 있으니 절대 주의해야 한다. '어째서 주인인 나를 따르지 않는가?' 하는 고민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면 고양이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불편할 수도 있다.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이다. 개와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한집에서 함께 살아갈 뿐 서로 각자의 삶에 충실하다.

가끔 부르면 개처럼 달려오고 내 품에 오래 안겨 있어도 좋겠구나 싶지만 그래도 지금 이 정도가 내겐 딱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 거리가 우리에겐 완벽하달까…… 삼시세끼 밥 주는 시간에는 꼬리를 지팡이 모양처럼 치켜들고 다가와 몸 구석구석을 내 다리에 성의껏 비벼대지만 밥을 먹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쌩 사라지는 그 정도. 딱 그 정도면 만족한다. 그리고 내가 외출할 때면 어딘가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눈빛이 가지 말라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역시 나의 착각일 가능성이 크다. 고양이들은 대체로 사람들이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크게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집에 돌아왔는데도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통 모습을 보이지 않아 결국 내가 숨바꼭질하듯이 찾아가서 이름을 부르고 아양을 떨곤 한다. 하지만 반응은 역시 시큰둥하다. "응. 왔냐?" 딱 그 정도……

특히 남편과 나에게는 뭔가 더 야박한 것만 같다. 우리집 어린이들은 고양이들을 수시로 귀찮게 하는데도 친구라고 생각하는지 제법 곁을 내주고 오래 안겨 있는다. 좋아하는 건지 참고 있는 건지 그 속을 정확히 알 순 없지만 그래도 분명 싫어하지는 않는 눈치다. 팔 힘도 없고 손도 조그마한 막내가 엉성한 자세로 안아 들면 아무런 저항 없이 헝겊 인형처럼 몸을 축 늘어뜨리고 안겨 있는다. 하지만 유독 남편이나 내가 안으면 뭔가 잔뜩 긴장하거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거세게 저항하거나 공격을 하지는 않지만 품에 안겨 끙끙거리기도 하고 한숨을 내쉬기도 하니 눈치 못 챌 수가 없다. 남편은 어떻게든 점수를 만회해보려고 좋아하는 간식을 후하게 줘 보기도 하지만 간식을 받아먹고 나면 다시 몸을 휙 돌려 사라져 버리기 일쑤다. 밥은 우리한테서 받아먹고 충성은 엉뚱한 데서 지키는 식이랄까?

하지만 그렇다고 얘네들이 어딘가 멀찍이 가버리거나 늘상 숨어있는 것만은 아니다. 고양이들은 항상 내 주위 어딘가에 머무른다. 아무리 불러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 일부러 내가 곁으로 다가가면 굳이 몸을 일으켜 옆으로 피해버리면서도 대체로 내 근처 1-2미터 이내 어딘가에 머무른다. 내가 안방 침대에서 쉬고 있으면 침대 밑이나 내 발 밑 근방에 있고 내가 거실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으면 내 발 밑이나 책장 옆 어딘가에 있다. 어디서든 본인 시야에 나를 두겠다는 의지가 확실해 보인다. 나는 얘네들이 안 보일 망정 자기네는 나를 보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모양이다. 경계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것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에게서 아주 멀어지지는 않는다. 항상 근처에 머물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그 거리가 얼마나 절묘한지 마치 유행가 가사처럼 내가 한 발 다가서면 두 발 멀어지는 딱 그 정도이다.

6개월을 동거하면서 가끔은 도대체 이 녀석들의 머릿속엔 뭐가 들어있나 몹시 궁금하기도 했다. 내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할 수 있다면 더 편하고 재미있었을까 생각도 해봤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아니다. 언어 소통이 가능해지면 이건 뭐 그냥 인간 아이 두 명 더 생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오해와 착각도 빈번하지만 나름 함께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니 이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고양이들의 생각 구석구석 알 턱이 없지만 적어도 얘네들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정도는 알 것 같다. 표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웃는 얼굴, 짜증 내는 얼굴, 난감한 얼굴 정도는 대충 알 것 같기도 하다. 앞으로도 우리의 거리가 좁혀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걸로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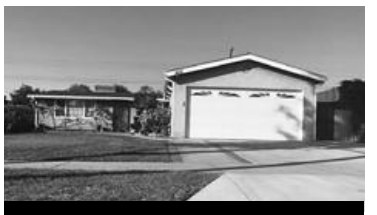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REDPOINT REALTY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풀러톤 단독 주택 54만불
믿을수 없는 가격의 싱글홈
방 3 화 2 대지 7200 sqft
풀러톤 다운타운에서 5분 거리

아직 마켓에 안나온
풀러톤 코요테 힐스 플랜4 95만불
최고의 학군 안에 있는
풀러톤 코요테 힐스 플랜 4
방 3개 화 3개 2100 sqft


라미라다 싱글홈 단독 주택
라미라다 싱글홈 단독 주택
방 4 화 2 1275 SQFT 대지 5800 sqft

부에나팍 콘도 타운홈 66만불 2006년
방 2개 화 3 ½ 1632 sqft
Founders Walk위치!! 1층에 방과 욕실.
2층에는 아주 넓고 세련된 주방과 거실, 집안 전체마루. 3층에는 침실 2개와 세탁실. 각 방마다 화장실. 마켓에 오래있지 않을 매물

풀러톤 단층집 869천
방 3 화 2개 1658sqft 대지 9500sqft
많은 과일 나무들을 포함한 많은 최근의 업그레이드들.
모든 침실에는 천장 선풍, 유지 보수도 쉽고 적은 아늑한 뒤뜰. 훌륭한 학교, 이웃

풀러톤 타운홈 725천불 2077sqft
방 3개 화 2개 (아직 마켓에 안나온집)
24시간 안전한 게이트 커뮤니티 페어웨이 빌리지!! 웅장한 거실과, 웅장한 천장, 벽난로, 무성하고 사적인 공동 구역의 인상적인 경치. 초대형 마스터 스위트룸과 전용 발코니. 1층에 침실 2개와 리모델된 욕실, 풀러턴의 중심부 위치.

풀러톤 단독주택 859천불 2442 sqft
방 5개 화 2.5 개 대지 7519 sqft
롤링 힐스 스쿨과 크레이그 파크...2층 – 5 베드룸 플러스 패밀리 룸, 2-1/2 욕실, 2,442 Sq. Ft. 2,419 Sq.ft. RV parking. 충분한 뒷마당공간

풀러톤 단층 단독주택 918천불
방 3 화 2 1936 sqft 대지 8833sqft
풀러톤 최고의 학군 넓고 햇볕이 잘 드는 집, 오픈 패밀리 룸, 대형 거실, 디자이너 조명, 천장 팬 및 크라운 몰딩 전체. 멋진 파티오,라구나 호수 근처, 차고 위쪽에 커다란 다락방. 전기 자동차 충전 가능.

풀러톤 타운홈 렌트
방 2개 Den 1개 화 2개
초중고 도보 거리
학군 좋은 곳
$2,700

풀러톤 타운홈 렌트
방3 화3개 4월 입주 가능
비치와 로즈크랜 근처
깨끗한 단지, 공원 근처
수영장
$3,150

사업체 매매
성업/발전 중인
한인 유명 베이커리
한달 순수익 2만불
종업원 운영, E2 가능

뉴포트비치 상가 리스
포텐셜 아주 좋은 뉴포트비치
9대 파킹 가능, 단독 주차장
주위 상권 활발한 번화가 위치
그루밍샵, 커피샵, 델리 등
발보아 섬 근처
*비지니스 대박 포텐셜 자리
*아주 좋은 리스 조건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정상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마켓 최고의 가격으로 7일 안에 팔아 드립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명예부사장
Honorary Vice President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DRE Lic. 02086695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